

오늘 우리에게 '美國'은 무엇인가

미국 관련도서 출판실태... 국내저술 점차 느는 추세

1492년 콜럼버스가 닻을 내린 후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아메리카합중국'이 탄생한 지 216년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 비해 일천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역사는 그러나, '한미수교통상조약' 110주년을 기록할 만큼 개항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洋擾'로 표현되던 극단적인 거부감이 일제와 해방, 6.25와 종전 후부터 내달리기 시작한 경제개발 정책을 거치면서 '우방' '맹방'으로 급속히 호전된 것이다. 이 관계는 적어도 70년대 말까지 변함없이 유지됐고, 미국의 영향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가히 전 세계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냉전종식의 기류를 타고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80년대부터 싹튼 국내의 반미의식과 맞물려, 최근의 미국에 대한 시각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날카롭고 냉정해진 상태다. 이러한 변화에 때맞춰 최근의 미국관련 연구서들도 적잖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통사와 특수사 등 미국사 연구서가 주종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미국관련 연구서들은 번역서나 대학강의 교재용 개론서가 주종을 이루었다. 국내 학자들의 저술은 우선 서양의 다른 나라에 비해 수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 수준의 전문서 일색이었던 것. 그러던 것이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저술이 부쩍 활기를 띠기 시작해, 가장 최근에는 비전공자를 위한

개항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 많이 냉정해졌다.

미국관련 연구서들이 번역서와

대학교재용 개론서 위주에서

주체적 시각을 강조한 국내 저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다.

연구서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바야흐로 미국에 대한 주체적·객관적 평가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케 한다.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책들을 중심으로 미국관련 연구서들을 살펴보면, 미국통사를 비롯해 정치사·경제사·외교사·사상사 등 특수사와 20세기 이후만을 집중조명한 현대사 등 일반적인 역사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 이와 함께 CIA 활동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상의 에피소드 등을 다룬 '秘史' 류, 현대 미국의 실상을 전해주는 시사물도 적잖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미국의 인종문제나 노동운동, 국내 반미감정 등 주제별 연구서들도 단행본으로 나와 있다.

미국통사는 현재 수종이 선보인 상태. 이중 미국사 연구의 제1세대에 속하는 이보형교수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미국사개론」(일조각)을 비롯해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현대사까지 다룬 「미국사」(이주영, 대한교과서),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사가 독립전쟁 직전부터 시작되는 데 반해 인디언 문명에서 건국에 이르는 초기 역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앙드레 모로아의 「미국사」(기린원)가 대표적 저술로 꼽힌다. 이밖에 「사료 미국사」(정만득, 계명대 출판부, 전3권), 「미국사신론」(C.V. 우드워드, 박무성 옮김, 법문사) 등도 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까지 정치·경제·군사·문화 제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각 부문별 특수사도 미국 이해에 필수적이다. 「미국정치론」(최명, 일진사), 「미국경제사개론」(이주영, 대한교과서), 「미국의 법원과 정치」(A. 콕스, 양승두 옮김, 학연사), 「미국의 정치적 전통」(R. 호프스태터, 이춘란 옮김, 탐구당), 「현대미국지성사」(P. 스타인펠스, 김쾌상 옮김, 현대사상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책들에 비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읽기엔 무거운 편이다.

특수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외교사 분야. 「미국의 대외관계」(표학길 외, 서울대출판부), 「미국의 외교정책사」(D. 퍼킨즈, 박무선 옮김, 법문사),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김영홍, 박무성 외 옮김, 신구문화사), 「현대미국외교사」(김진웅, 아세아문화사) 등이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것들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전통적 한미관계의 재조명 작업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와 함께 「미국현대사」(A. 브린클린 외, 박무성 옮김, 문맥사), 「현대미국의 성립」(C.N. 데글러, 이보형 외 옮김, 일조각) 등은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고착된 20세기 미국의 역사를 그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사회문제와 아울러 살펴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열렬한 노예제 반대자로 유명한 존 퀸시 애덤스(미국 제6대 대통령)는 완고하고 우울한 성격이었지만 몇몇 통찰력 있는 동료들이 고위 선출관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 등 일반적인 미국사에서는 읽을 수 없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미국사의 숨은 이야기」(다니엘 J. 부어스틴, 이보형 외 옮김, 범양사출판부)와 1947년 냉전체제의 발흥과 함께 영국의 도움으로 창설된 CI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정보활동의 성공과 실패담,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 정세에 끼친 영향 등을 밝힌 「미국대외공작사」(R. 제프리 존스, 김삼민 옮김, 학민사)도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주체적 시각 강조한 국내저술 늘어나

이상에 소개한 미국관련서들과 비교해볼 때, 가장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책들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 저술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과 논의의 초점이 2차대전 후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결코 밝지만은 않은 미래에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선 기존의 미국사 관련서와는 접근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미국의 역사」(최용·김봉중, 소나무)는 인디언 시대로부터

칸트 철학의 분석적 이해

C.D. 브로드 지음/허영석, 이남원 옮김/12,000원

칸트철학의 핵심적인 점들이 그의 주요저서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데 특히, 《순수이성비판》을 중심으로 칸트철학을 비판적 견지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저자의 명석하고도 사려깊은 비판은 예리하고도 호소력이 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J.L. 아크릴 지음/한석환 옮김/6,500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반에 대한 안내서로 기존의 연구서와는 달리 그의 철학적 논구들이 지닌 생각들과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는 생각 사이의 연계성을 밝혀 그가 다방면에 놀라운 형안을 지닌 철학자임을 밝혀준다.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신중섭 지음/7,500원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극단적인 두 입장을 형식적 합리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로 규정하여 비판하면서 역사적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제 2부는 제 1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말과 행위

J.L. 오스틴 지음/김영진 옮김/5,500원

비트겐슈타인과 더불어 20세기 분석철학과 언어철학의 거장인 오스틴의 저서로 언어철학, 분석철학, 분석 윤리학 등의 중요 문제를 다루었으며 철학, 언어학, 법학, 언론학, 의사소통론, 영어 문법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현재 나와있는 미국관련 연구서들은 통사와 정치·경제·외교부문 특수사, 20세기 이후를 집중조명한 현대사 등 역사서가 주종을 이룬다.

월남전까지 통사체계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시대별 '문제사' 중심의 해석적 기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내 최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공화국을 해밀턴주의와 제퍼슨주의의 대립기로, 19세기말을 사회진화론과 자본주의의 발달기로, 19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 초를 월남전 패전의 상처와 교훈의 시기로 자리매김하는 등 현재 국내의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선별, 재구성해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역사의 새 발견」(이보형 엮음, 소나무)은 국내 미국사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한 논문집으로, 학계의 미국사 연구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미국의 건국이념, 미국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인종주의, 미국 기업문화와 노동문제, 미국의 비정통 사조인 사회주의·무

정부주의·파시즘, 그리고 미국 학계와 예술계 등 미국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역사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출판사에서 미국 200년사의 주요 사건관련 선언문과 교서, 법률 등의 자료에 국내 학자 30여명의 논문을 담은 「미국사 사료 100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위의 두 연구서가 예의 최근 국내 저술의 대표적 예라면, 「한국인의 반미감정」(김진웅, 일조각)과 「아메리카의 대폭락」(히다카 요시키, 오에영 옮김, 다섯수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미국을 보는 달라진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됐던 우리나라의 반미의식 현황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한국인의 반미감정」은 각종 국내외 여론조사와 양국 주요인사들의 발언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80년대 이래의 반미감정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주한 미군으로 대표되는 장기간에 걸친 한국에서의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 한국인들 사이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민족자긍심의 증대, 80년대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 미국의 한국 시장 개방압력 같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 등을 10여년 사이 빠른 속도로 확산돼가는 반미의식의 원인으로 꼽는다.

일본의 미국통 저널리스트가 예견한 미국의 미래상을 담은 「아메리카 대폭락」은 소련 혹은 사회주의권이라는 '적'이 사라진 지금 미국은 오히려 자국 자본주의 존립의 체제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상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이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인종문제·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내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패권주의적 태도를 지금처럼 견지한다면, 막강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꿈은 우선 '내부전쟁'으로 인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을 보여준다.

과거 한미관계 재조명작업도 활발

「밀월관계」에서 '불편한 결혼관계'로 탈바꿈해가는 현재의 한미관계는 과거의 친미주의가 쇠퇴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미국관련서의 내용과 연구시각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기존 연구서와의 변별점을 마련해주고 있다.

미국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우리나라 미국연구 초창기에는 당연히 번역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후에도 이렇다할 저술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 학계 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 비해 전공자가 수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그간의 부진함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대거 등장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미국연구 붐에 힘입어, 최근 몇년 사이 괄목할 만한 연구서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체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한미관계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6.25 이후 40여년간 계속돼온 미국에 대한 환상의 터널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실증해내,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데 적잖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한미관계의 재인식 1·2」(류상형 외, 두리), 「한미관계사」(박영호 외, 실천문화사), 「한미관계 40년」(곽태환 외, 경희대출판부) 등이 그것들. 또한 최근의 미국관련서들이 비전공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양도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한편에서는 전공자들의 양적 증가로 전문화·다양화될 전망이다.

— 정소연 기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야-떠나자! 자연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모험도감

캠핑 생활의 친절한 선생님!
자연을 친구 삼아 즐기는
짜릿하고 신나는 캠핑 생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만 하는 우리들.

야외생활의 길잡이, 「모험도감」이
여러분을 도와 줍니다.

• 2도 인쇄/340쪽/값 4,800원



◆ 모험도감에 실린 주요 내용

걷는다: 신발을 고른다, 걷는법, 옷차림, 배낭꾸리기.
먹는다: 우선 집에서 요리를 해보자, 밥 짓기, 식칼 사용법.
잔다: 노숙을 해보자, 잘 자려면, 텐트치는 법.
만들며 논다: 나무그릇 만들기, 해먹치기, 목공예품 만들기.
동물과 식물을 만난다: 가까운 곳의 나무 관찰 뉴시를 하자.
위험에 대처한다: 길을 잃었을 때, 벼락을 피하는 법.

◆ 자연도감에 실린 주요 내용

자연을 관찰하는 방법, 가까이 있는 곤충
집 가까이 있는 포유동물 철새의 이동
개구리의 사는 모습, 강 하류에 사는 생물.



자연도감

동식물은 다정한 내 친구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나는
수많은 동식물은 다정한 친구.
포유류, 조류, 어류, 식물……

우리와 함께 사는
동식물을 다룬 「자연도감」은
자연을 가르쳐 줍니다.

• 2도 인쇄/340쪽/값 4,800원